

## Dave Mathewson 박사, 요한계시록, 강의 22, 요한계시록 17:1-18:5, 바벨론 소개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요한계시록 17:-18.5, 바벨론 소개의 22번째 세션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보기 전에, 일곱 번째 대접에서 일어난 일을 다시 요약하기 위해, 우리는 일곱 번째 대접과 함께 다른 일련의 일곱, 일곱 인과 나팔처럼 일곱 번째 대접이 우리를 바로 그 땅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끝.

요한계시록 16장의 일곱 번째 대접에 나오는 언어와 17절부터 시작되는 번개와 음성과 천둥과 심한 지진의 언어를 주목하십시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신현을 묘사하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여러 번 나타나 심판을 암시하거나 예상합니다. 이제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지진에 대한 언급이나 이전에 이 규모의 지진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와 있음을 다시 한 번 나타냅니다.

그럼 이것이 최종판결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신현의 임재로 온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형태로 나타나는 마지막 때의 심판입니다. 또한 이 시점에서 큰 도시 또는 바벨론으로 분류된 것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거나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여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기억하고 있는 바벨론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러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진노의 포도주가 담긴 잔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은 다시 구약성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포도주가 담긴 잔의 언어가 악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대접 번호는 종말 심판의 그림뿐만 아니라 그 맥락에서 바벨론 자체의 심판에 대한 언급으로 끝납니다.

이제 일곱 번째 봉인은 17장과 18장에서 더 자세히 풀릴 것입니다.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성격과 일곱 번째 대접에 따른 심판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17장과 18장,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18장을 넘어 18장 이후의 장 구분을 무시하고 적어도 19장의 처음 다섯 절을 포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19장 1절부터 5절까지가 18장에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17장과 18장은 물론 19장과 1절부터 5절까지도 포함됩니다. 자, 우리는 이미 바벨론의 심판이나 멸망은 이미 14장과 8절에서 예상되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무너졌다, 무너졌다 바벨론이라는 선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7번 인봉에서 우리는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면서 바벨론을 기억하시는 것에 대한 또 다른 기대와 간략한 요약은 보았습니다.

이제 17장과 18장은 그 타락에 대해 더 철저하게 설명하거나 다른 두 본문에서 예상했던 내용을 더 자세히 밝힐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고 제가 제안한 것 중 하나는 18장부터 22장이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실제로는 6장까지 여러 차례 이미 예상했던 내용을 더 자세히 묘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이 우리를 주의 날까지 인도하는 곳이니라 예를 들어, 7장은 현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있고 그들의 영원한 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144,000명, 즉 셀 수 없는 무리에 대한 다소 자세하고 설명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 심판과 구원에 대한 기대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자가 17장부터 일종의 수문을 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저자가 최종 심판과 최종 구원에 대한 더 완전한 공개를 위해 여러분의 식욕을 자극하고 독자가 18장부터 22장까지 도달해도 거의 실망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17장부터 18장,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시 한 번 17장부터 18장까지 언급하겠지만, 19장의 처음 5~6절도 포함합니다. 이 절은 17장부터 18장까지의 응답과 결론, 즉 바벨론의 멸망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17장은 매춘부 바벨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즉, 매춘부로 묘사된 여자는 바빌론 도시와 동일시되거나 상징되며, 우리는 바빌론 도시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잠시 후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7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설명이 나오며, 그 유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14장과 16장에서도 예상했던 바벨론 자체의 실제 심판과 멸망에 관해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일곱째 인에. 즉, 17장은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18장은 책 앞부분에서 약속하고 예상한 대로 그 심판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과 18장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14장의 이전 예상에서 일곱째 인에 나오는 14장 8절과 16절을 보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17장과 18장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18절은 한 쌍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부분으로, 17장과 18장에서 우리는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와 정반대되는 음녀 바벨론이나 음녀 바벨론에 대한 언급을 발견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신부를 묘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17장과 18장, 그리고 19장의 처음 몇 절에서도 요한은 천사에게 끌려갔습니다. 두 텍스트를 보면 두 쌍의 섹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부분의 맨 처음과 맨 끝, 그리고 음녀 바벨론에 대한 묘사 사이에도 유사점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는 21:9부터 22:5까지의 신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와 평행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17장의 맨 처음 부분에서 요한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나더러 오라 내가 큰 창녀가 받을 형벌을 네게 보이리라 했다고 말합니다. 천사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는데 거기서 나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제 21장과 9절에 동일한 언어가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러자 마지막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 곧 17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득 담은 일곱 대접과 같은 천사 또는 같은 유형의 천사가 와서 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라 그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큰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때에 그가 보시는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묘사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므로 두 부분 모두 일곱 대접을 들고 있는 천사 중 한 사람으로 시작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어느 것이 정확히 같은지 여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그에게 와서 요한에게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영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한 여자를 보여 주었다. 한 경우는 매춘부 바벨론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새 예루살렘의 신부입니다. 따라서 둘 다 비슷한 시작점을 가지고 있지만 끝도 같은 방식으로 끝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두 부분 모두 쓰라는 명령으로 끝나고, 또한 우리가 나중에 조금 살펴볼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천사를 경배하기 위해 몸을 굽히고 천사가 응답하는 이 흥미로운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19장 9절과 10절에서 천사가 나에게 이것을 기록하라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였고 10절에서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리어 경배하니 그러나 그는 나에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동료 종이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22장 6절부터 9절까지에서 새 예루살렘 신부의 형상이나 환상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동일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대조되는 쌍을 이루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해석자들이 이것을 부록으로 잘못 표시한 것 같습니다. 즉 바빌론 부록과 새 예루살렘 부록은 부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절정이자 핵심입니다.

따라서 부록이라기보다는 바벨론에 대한 최종 심판 비전과 새 예루살렘 신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 상급을 결합하는 일종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부록이라기보다는 이 책 전체의 목표이자 절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제 이 후반부 장들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음녀 바벨론에서 신부 새 예루살렘으로 일어나는 움직임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18장 4절의 첫 부분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하는 부분인 4절에서 저자는 나중에 살펴보게 될 구약성경 본문을 활용합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촉구합니다. 즉 그녀의 심판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기 위해 그들 자신을 제거하거나 바빌론에서 나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암시나 암시는 그들이 그녀에게서 나오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갈 곳이 있어야 하므로 그 곳에서 나온 너희는 이제 21장과 22장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이사하고 들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교회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2장과 3장에서 교회에 요청하는 행동입니다. 즉, 교회는 승리를 위한 축복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새 창조의 축복을 물려받을 것이며,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이며, 이미 보았지만, 일곱 교회는 모두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거의 항상 20장부터 22장까지의 어떤 것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17장과 18장에서 교회들을 부릅니다. 음녀 바벨론에서 새 예루살렘의 신부로의 이 움직임은 요한 자신이 그의 교회들이 일으키기를 원하는 움직임입니다. 즉, 순결함을 유지하고 신실한 증언을 유지함으로써 타협을 거부하고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그녀에게서 나올 것이며, 대신에 그들은 그들의 상속 재산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극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대조되는 두 여자와 대조되는 두 도시에 대한 환상으로 나타나며, 각각에서 두 실체는 모두 여자와 도시, 창녀, 바벨론과 신부, 새 예루살렘, 심지어는 그 언어로 묘사됩니다. John이 여기 마지막에 설정한 대조의 본질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17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7장은 온갖 종류의 문제로 가득 차 있어서 마지막 세부 사항까지 모두 살펴볼 시간은 없지만 본문과 일부 내용에서 더 중요한 세부 사항을 다루고 싶습니다. 종종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섹션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 그 내용을 약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요한은 심판과 음녀 바벨론의 제거를 먼저 묘사하거나 17장에서 그것을 묘사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왜 요한이 바벨론을 심판받는 것으로 묘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지닌 단어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것을 창세기 11장과 바벨탑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는 신이 없고 오만하며 교만한 인류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도, 또 구약에서도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곳 중 하나이며, 또 바벨론은 특히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우상숭배하고, 교만하고, 압제적인 백성으로 묘사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를 고려할 때 바벨론은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예배를 요구하는 오만한 민족으로 특징지어지는 모든 국가나

민족의 거의 상징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위에 교만하게 자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해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은 그런 식으로 특성화되는 다른 도시나 사람들의 모델이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왜 요한이 여기서 바벨론을 사용했는가, 아니면 바벨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포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바벨론이 세워질 마지막 도시를 가리킨다고 제안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이 미래에 문자 그대로 그리고 실제로 재건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50장과 51장과 같은 구약성서의 문자적 성취뿐만 아니라 요한이 바벨론 이미지를 위해 끌어들이는 핵심 텍스트 중 하나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17장과 18장에 비추어 요한계시록을 오로지 미래의 4장부터 24장, 4장부터 22장까지만 미래에만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접근 방식, 즉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재건된 바벨론이지만 문자 그대로의 지리적 위치에 있는 문자적인 바벨론은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미래에 문자 그대로 재건된 도시를 기대합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바벨론이 일종의 로마, 로마 도시의 암호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맥락과 매우 잘 들어맞습니다. 요한이 그리스-로마 제국의 상황과 로마 제국 통치의 압력 아래 살고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첫 번째 독자들이 이 글을 읽고 바벨론의 관점에서 생각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입니다. 로마를 바벨론으로 본다면.

즉,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우상숭배하고, 불경건하고, 억압적인 백성의 상징으로서, 하나님 위에 스스로를 세워 그 권력을 절대화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고, 관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권위를 주장하는 도시입니다. 로마가 요한이 묘사한 방식대로 특징지어진다는 점에서 바벨론은 로마에 완벽하게 들어맞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에 대한 증거를 봅니다.

적어도 1세기 이 무렵에는 바빌론이 로마를 위한 일종의 암호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맨 끝 부분에 베드로가 쓴 편지, 베드로전서

5장과 14절, 실제로는 13절, 베드로전서 5장, 13절, 바벨론에서 택하심을 입은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와 함께 안부를 전하고 내 아들 마크도 그리하느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드로전서가 로마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되었지만 로마 통치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은 적어도 베드로가 바벨론을 사용했다면, 적어도 일부 기독교인이나 많은 기독교인이 바빌론을 로마 도시에 대한 일종의 암호로 이해했을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이 여기서 선례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바빌론이 1세기에 로마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이었기 때문에 바빌론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는 구약의 배경과 그 당시 구약의 바벨론이 구현된 궁극적인 표현을 지금 로마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그는 로마 시에서 훨씬 더 큰 방식으로 다시 떠오르고 다시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독자들이 이 글을 읽지 않았을 것이며 요한이 로마 자체와 로마와 그 제국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17장 뒷부분, 특히 9절에서 요한의 환상의 일부는 처음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는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짐승에게는 일곱 머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가 어떻게 일곱 머리를 식별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9절에서는 지혜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니라.

일곱 언덕이라는 개념은 아마도 일곱 언덕 위에 앉아 있는 로마의 일부 문헌이나 로마가 일곱 언덕과 연관되어 있다는 역사적 공통 이해를 반영했을 것입니다. 사실, 동전은 여러 개 있는데 David Aune의 해설, 그의 세 번째 권 17~22장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는 실제로 로마가 여신, 즉 앉아 있는 여인으로 묘사된 동전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개의 언덕.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일곱 언덕에 대한 이 묘사는 바빌론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로마를 일반적으로 지칭한다는 사실과 함께 요한이 여기서 바빌론을 1세기 도시 로마와 동일시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의 독자들은 그러한 연결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요한 자신은 그 여인이 일곱 언덕에 앉아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 등 본문에 단서를 제시하여 그것이 우리가 식별해야 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한은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지배했던 지배적인 제국에 대한 설명을 더 자세히 전개할

것입니다. 로마 시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과 로마가 통치했던 모든 지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절과 2절은 아마도 17장의 기능을 할 것이며 전체 환상의 배경이 될 것입니다. 즉, 17장 1절과 2절은 1절과 2절이 우리를 소개하는 17장과 18절의 배경이나 서문 역할도 합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창녀 곧 음녀의 형벌을 네게 보이리라 말한다. 우리가 제안한 바벨론은 로마 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17장과 18장에서는 이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17장이 왜 바벨론, 즉 로마가 죄가 있고 왜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그 심판에 대해 설명합니다.

두 장의 또 다른 차이점은 17장이 대체로 환상적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주로 요한이 이 짐승을 탄 이 여자에 대해 본 환상과 그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18장에는 환상에 관한 내용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청각적입니다. 18장의 대부분은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하거나 해석하는 애가나 연설,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17장은 더 많은 비전과 그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18장은 애도와 연설 등의 형태로 좀 더 청각적입니다. 본문을 보기 전에 최소한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부터 시작하여 이것은 우리에게 로마 바벨론의 심판으로 시작되는 이 책의 절정을 소개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르되,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형벌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주민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나를 광야로, 영으로,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참람된 이름들로 덮여 있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진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손에는 가증한 것들과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 담긴 금잔을 가졌더라.

그 이마에 이런 칭호가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요 음녀들의 어미와 땅의 가증한 것들이라 하였더라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를 증언한 자들의 피에 취한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보고 크게 놀랐다.



그러자 천사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희에게 설명하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무저갱에서 올라와 자기의 멸망에 들어가리라.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땅의 거민들이 그 짐승을 보면 놀랄 것인데 이는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오리라 함이라.

여기에는 지혜가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았은 일곱 산이니라. 그들도 일곱 왕이다.

그 중 5명이 쓰러졌습니다.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시면 잠시 동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이 여덟째 왕이니라. 그는 일곱 사람에게 속하였으니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본 열 뿔은 열 왕이니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짐승과 함께 왕으로서 권세를 한 시간 동안 받으리라.

그들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을 대적하여 전쟁을 할 것이나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고 신실한 추종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았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나라와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짐승과 열 뿔이 음녀를 미워할 것이다. 그들은 그 여자를 파멸시키고 벌거벗긴 채 버려둘 것이다.

그들은 그 여자의 살을 먹고 불로 태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시려고 그 짐승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기로 그들의 마음에 주사 하셨느니라.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따라서 1절과 2절은 전체 환상에 대한 일종의 분위기를 설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17장조차도 바벨론의 멸망과 관련이 있거나 17장과 18장에서 일어나는 바벨론의 궁극적인 멸망과 멸망을 위해 당신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19장, 적어도 처음 5~6절을 포함해야 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분명한 반응입니다. 내가 이전에 주장한 것처럼 요한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을 다시 지적하기 위해 요한은 실제로 환상을 보았고 환상을 보았다는 사실을 고수하지만 그는

그 환상을 연결하고 구약성경 본문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해석합니다. 그것은 그가 본 것과 정확히 유사하고 더 자세히 설명하고 적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이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을 묘사하기 위해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가장 중요한 본문 중 하나가 예레미야 50장, 특히 예레미야 51장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바벨론을 많은 위에 앉아 있는 것으로 묘사할 때 예를 들어 예레미야 51장과 13절에서 나는 뒤로 물러나서 12절을 읽고 바벨론 성벽에 깃발을 높이 들겠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멸망을 아주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경비실과 파수꾼을 보강하고 매복을 준비하세요. 많은 물가에 거주하며 보물이 풍부한 너희여 여호와께서 그 뜻을 이루시리니 곧 바벨론 백성에 대한 그 뜻과 바벨론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13절).

이제 요한이 여기 17장에서 바벨론과 로마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로 어떻게 묘사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그는 3절과 4절, 특히 4절에서 그녀가 보물로 장식되어 있다고 묘사할 것입니다. 그녀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벨론, 역사적 바벨론,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구약의 묘사를 명확하게 활용하여 바벨론과 유사한 또 다른 도시와 그 심판도 묘사합니다. 2절에서 요한이 이르되 오라 내가 큰 음녀의 형벌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2절에서 창녀로 불린 사실은 이미 바벨론이나 로마의 성격, 혹은 그 성의 성격을 가리킨다. 그녀를 매춘부라고 부르는 것은 요한이 나중에 17장에서 바벨론을 비난할 범죄 중 하나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여자가 민족들로 하여금 그 여자와 간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는 창녀로 묘사될 것이며, 다른 나라들과 다른 민족들도 그녀를 유혹하여 그와 간음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성서에서 우리는 매춘이나 간음에 대한 이러한 언어를 자주 발견하는데, 특히 구약성서 전체에 걸쳐 이스라엘이 묘사되는 구약성서의 이스라엘 국가를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아내 또는 신부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따르는 것, 즉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영적인 간음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우상을 좇고, 이방 신들을 좇고, 언약을 어길 때, 그것은 흔히 간음하고, 창녀의 역할을 하고, 간음을 깨뜨리고, 방황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벗어나 우상을 따르고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적어도 두 개의 본문에서 우리는 단지 이스라엘 국가만이 아니라 이교 외국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매춘부나 간음의 언어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성서 이사야 23장, 이사야 23장, 15절부터 17절까지가 중요한 본문이다. 이사야 2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 때에 두로야, 이는 두로에 대한 탄식이며 두로에 대한 심판을 바라는 것이니라. 그 때에는 두로가 왕의 수명인 70년 동안 잊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70년 후에는 창녀의 노래와 같은 일이 두로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프를 들고 도시로 걸어가라, 오 잊혀진 매춘부여. 당신이 기억될 수 있도록 거문고를 잘 연주하고 노래도 많이 부르십시오. 70년이 지나면 여호와께서 두로를 처벌하실 것이며, 그가 다시 매춘부로서의 품삯을 받을 것이며, 그가 지상의 모든 왕국과 무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시간을 내어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본문은 나훔입니다. 사실 나훔 3장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훔 3장과 4절에는 나훔 3장과 4절이 있습니다. 모두 민족들을 노예로 삼는 마술사의 여주인을 유혹하는 음녀의 방탕한 정욕 때문입니다. 그녀의 매춘. 따라서 이 두 본문 모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외국 민족을 다른 민족을 유혹하고 유혹하거나 노예로 삼아 자신의 매춘 행위에 참여하기 위해 함께 간음을 범하는 매춘부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매춘부로 특징지어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 숭배 행위에 가담하여 간음과 음행을 저지르게 할 수 있는 이교 국가들의 배경과 함께, 이 본문은 로마 바벨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적절한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로마를 다른 나라들을 유혹하여 자신과 간음하도록 유혹하는 매춘부로 묘사하기 위해 이 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강조점은 이스라엘이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나훔 3장과 이사야 23장 본문을 반영하여 다른 나라들이 그녀와 간음하도록 시키는 매춘부인 로마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너무 잘 어울리는 나훔과 이사야 본문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나훔과 이사야 모두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간음하게 만드는 음녀 도시의 활동의 성격은 경제적입니다. 그것은 주로 그들의 신을 숭배함으로써가 아니라 주로 다른 나라들이 간음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주로 그들의 부당한 이득과 사치에 참여함으로써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18장에서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의 범죄 중 하나는 로마가

기본적으로 먹고살거나 돈을 벌어 간음하도록 다른 나라들을 유혹하는 창녀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부와 과도한 사치로 생활합니다.

나훔과 이사야서에 나오는 외국 도시들에 대한 범죄가 이것이며, 지금 로마 바벨론 도시에 대한 범죄가 그것이다. 그녀는 다른 나라들을 부와 사치를 얻는 그녀의 경제 시스템에 가두어 간음을 범하게 했으며, 아마도 그것은 우상 숭배 행위와도 연관되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경제 체제와 공모하고 참여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은 그 덕분에 생계를 유지하고 부와 사치를 얻었습니다.

로마를 매춘부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를 매춘부라고 부르는 것은 유혹과 통제를 암시한다는 점에서 확실히 타당하다. 그녀는 경제적 관행을 통해 나라들을 유혹할 뿐만 아니라, 부를 얻기 위해 다시 다른 나라들을 그녀의 우상 숭배 관행, 특히 경제적 관행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 나라들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나라들은 그들의 부와 안전을 위해 로마에 의존하는 것으로 묘사되며, 요한계시록 18장은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언어로 주로 구약성경 본문과 예레미야 51장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다른 신이 없는 도시에 대한 심판을 정죄하거나 선언하는 다른 구약성경 본문을 사용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느웨, 특히 두로와 같이, 그의 그림은 일종의 합성 그림이지만,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여기서 로마를 지칭하는 데 사용된 정확한 용어인 바벨론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묘사한다는 점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요한은 사치와 부에 대한 욕망을 묘사하는 경건하지 않고 우상 숭배적이고 사치스러운 다른 도시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내세우고 신성한 권위를 관개할 것입니다. 요한은 바벨론과 로마를 묘사하기 위해 다른 도시들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와 두로의 몰락에 대한 묘사와 같은 다른 구약의 본문을 그릴 것입니다.

또한 그가 다른 본문을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예레미야서 50장부터 51장까지가 바벨론의 부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과도한 사치,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그들의 경제 시스템과 경제 관행에 참여하도록 함정에 빠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에 참여하도록 유혹하여 기본적으로 로마와 연합하여 부를 축적하게 합니다. 요한이 발견한 유일한 장소는 두로와 같은 다른 도시이므로 구약성서에서 두로에 대한 신탁도 로마의 부와 상업 활동을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로마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빌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예레미야서의 바벨론 심판으로 시작하지만 다른 본문도 포함하는 구약 본문의 합성 그림입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는 3절부터 시작하여 본연의 환상, 즉 3절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장 3절부터 끝까지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요한이 본 환상, 즉 음녀 바벨론의 환상에 대한 설명이고, 6절은 그 환상에 대한 요한의 반응으로 끝나고 7절부터 시작해서 장 끝까지 해석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본 환상에 대해, 아마도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당신도 그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다른 묵시록, 다른 유대인 묵시록에서 우리는 천사가 일종의 여행에 선견자를 데리고 가서 그에게 다른 장소나 환상을 보여주고 때로는 천사가 그 환상을 해석하는 이러한 특징을 자주 발견합니다. 요한의 묵시록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어느 정도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여기입니다.

우리는 일곱 등잔대와 일곱 별이 요한을 위해 해석된 1장 20절을 다시 간략하게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7장에서 간략히 보았습니다. 요한은 흰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천사는 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가장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의 환상을 해석하는 천사적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세부적인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천사의 해석이 우리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John과 첫 번째 독자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실제로 훨씬 더 명확해지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해석은 비전 자체만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독단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읽으십시오. 그러나 환상에 대한 가능한 이해뿐 아니라 천사가 요한에게 준 환상에 대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선 비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천사가 일곱 황소 중 하나를 요한에게 와서 창녀가 멸망되는 환상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을 때, 3절에서 천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에게 창녀의 환상을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 즉 17장 전체의 기능 중 하나는 18장의 장면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왜 음녀가 심판을 받아 마땅한지, 왜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요한을 환상적인 여행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는 실제로는 여행이 아닙니다. 다른 종말은 종종 선견자를 다른 위치로 데려갑니다.

John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기 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21장에서 예루살렘의 신부를 만나기 위해 높은 산으로 끌려가는 다른 장소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환상의 배경이 되는 사막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사막에 대한 언급은 다시 한 번 구약에 의존하고 있으며 요한은 사막에서 요한의 환상의 배경으로 이사야 21장과 10절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고, 21장에서는 이사야 21장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10절. 다시 말하지만,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1, 21:10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찾을 수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요점은 사막의 배경입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John이 사막을 보호와 보존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12장 14절에서 광야는 여자가 끌려간 곳이었고, 그곳에서 그녀가 일정 기간 동안 보호받고 양육받고 보호를 받았지만 여기서 광야는 분명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막은 악의 장소입니다. 사막은 야생 동물과 악마적 존재가 서식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사막은 분명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광야로 끌려간 것은 시험을 위한 장소도 아니고 보존이나 보호를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며 이 환상에 불길한 암시가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8장에서 그곳은 결국 귀신들의 소굴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사는 곳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광야는 18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될 심판의 의미를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은 두 인물, 두 명의 지배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명은 짐승이고, 다른 한 명은 그 짐승을 탄 여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소개한 짐승은 사실 짐승에 대한 설명을 보면 11장에서 이미 만난 짐승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특히 13장에서는 그 짐승이 옷을 입은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3장의 첫 번째 짐승에서 볼 수 있는 신성모독적인 이름을 지닌 진홍빛과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과 비슷한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부가 특징으로 묘사됩니다.

그녀는 보라색과 진홍색, 금과 보석으로 옷을 입고 있는데, 이는 적어도 여기서는 로마에 속한 부와 사치를 두 배로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아마도 여기서 매춘부의 옷을

묘사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요한이 1장에서 로마를 소개했듯이 이제 로마는 매춘부로 묘사됩니다. 그는 이제 매춘부를 만나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그녀는 그녀의 경제적 관행으로 국가들을 유혹할 그녀의 엄청난 부와 과도한 사치로 구성되고 반영되는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 두 요소는 요한이 언급하는 요소들입니다. 짐승을 탄 여자와 짐승과 그의 일곱 머리와 열 뿔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7절부터 환상 해석에서 더 자세히 설명될 것입니다. 이제 6절 환상의 또 다른 특징은 그녀가 성도들을 박해하는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의 피에 취한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주의를 끌기 위한 환상의 두 가지 흥미로운 특징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백업을 하자면, 그런데 이 구절들은 이미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해석 이전에도, 이미 우리에게 주요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바빌론 로마의 범죄. 즉, 그들은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될 두세 가지 주요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단순히 그녀가 국가를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여자와 간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나라들을 경제 연합과 함정으로 말미암아 로마 바벨론에서 부하게 하여 간음하게 하였느니라. 둘째, 그녀는 오만하고, 극도로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인물로 묘사된다.

이제 우리는 6절에서 보았듯이 그녀는 또한 예수의 증거를 전하는 자들로 묘사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폭력으로 죽이는 폭력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계시록 전반에 걸쳐 교회에 대한 공통 주제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야 하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공통된 이유입니다. 그들의 충실한 증언과 간증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비전의 다른 두 가지 특징은 중요합니다.

우선 이제 짐승과 여자가 분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는 안 되지만, 여자가 짐승을 탄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아마도 여자가 짐승을 통제하거나 짐승의 권위가 밑에 있고 짐승이 여자에게 진정한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라는 것을 암시할 것입니다. 로마로 확인된 여자, 바벨론 로마로, 이제 그 짐승이 그 뒤에 있는 진정한 세력입니다.

그런 그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다양한 제안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짐승이 그 배후에 있는 권력과 군사력에 더 가깝고 아마도 여성은 로마의 경제적, 종교적 부분에 더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는 또 다른 방법이 아마도 이것이 짐승을 암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시록의 다른 곳에서도 짐승이

13장과 11장과 같이 로마와 동일시되었지만 이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 짐승은 로마와 동일시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짐승인 로마가 로마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 짐승은 우리가 구약성서에서 본 과거의 짐승과 똑같습니다. 이집트와 다른 신이 없는 외국 제국과 같은 다른 제국의 밑에 있는 동일한 괴물의 밑에 있는 이 동일한 짐승 같은 인물은 이제 로마도 지원하고 이제 로마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단순히 그 짐승이 단순한 로마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즉, 과거로 확장되고 미래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목적에 따라 그는 우상 숭배를 대표하는 짐승의 오랜 역사와 함께 오는 짐승과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오만하는 사탄의 영감을 받은 나라를 봅니다. 이제 그 동일한 짐승 같은 모습이 다시 떠오르고 있으며, 여자를 부양하는 짐승이 나타내는 것처럼 로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사실인지 확신할 수 없지만, 내 생각에 그것은 타당한 설명이 될 것이고, 그 짐승은 다른 곳의 로마라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제 그 짐승이 로마보다 더 크다는 사실, 즉 로마의 도시인 매춘부 바벨론 배후에 있는 진정한 힘과 권위의 근원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하고 싶어합니다. 둘째, 이 비전에서 저자는 로마의 악과 본성을 은폐할 수 있는 것은 로마의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본성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른 나라를 유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즉 다른 나라들은 로마의 간음에 취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즉 로마의 매력과 유혹으로 인해 이제 열방은 바벨론, 로마의 참된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는 자신의 사악하고 추악한 본성을 은폐합니다. 폭력적인 성격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Roma Eterna, 영원한 로마 또는 Pax Romana, 로마의 평화와 같은 전형적인 로마 신화가 약간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은 진정한 묵시적인 방식으로 로마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매혹적이고 매력적이며 매혹적인 본성 뒤에는 흉측한 야수와 폭력적이고 억압적이며 우상 숭배적인 제국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적어도 17장에서는 18장을 준비하는 이러한 이미지가 로마의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성격이 로마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은폐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들을 거기에 참여하게 하고, 이것이 국가를 유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요한이 이것이 죄가 작용하는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과 관계를 볼 때 이것이 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죄가 끔찍하고 끔찍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데, 확실히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점은 죄가 끔찍하고 무서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 결과를 숨깁니다. 죄는 하나님의 성품을 침해하는 자신의 추악한 본성을 숨기고, 매력과 유혹의 겉모습 뒤에 심판의 끔찍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숨깁니다. 죄는 그 결과를 숨기고 그 추악한 본성을 숨기면서 우리에게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존재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가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한이 바벨론과 로마가 이곳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는 방식입니다. 포악하고 경건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짐승으로서 멸망시키고 해롭게 하려고 하는 짐승으로서의 흉측한 본성을 숨기고, 그 결과 곧 심판에 들어갈 사실도 숨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국가들이 유혹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유혹을 받아 바벨론에 참여하게 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또 다른 두 가지 특징.

우선, 그녀는 값비싼 아마포 옷을 입었을 뿐 아니라 금과 보석을 입은 여인으로 묘사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의 또 다른 부분입니다. 신부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치장합니다. 새 예루살렘 환상의 나머지 부분이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녀를 매혹적인 창녀이자 매춘부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다른 나라를 유혹할 로마의 사치와 부를 입고 있는 것으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결혼 예복과 금과 장신구와도 정반대되는 부분입니다. 21장의 보석.

이제 매춘부 바빌론도 비슷한 관점으로 묘사되어 둘 사이의 대조를 더욱 드러냅니다. 또 다른 문제는 17장 5절에 보면 그 이마에 쓴 것이 있으니 큰 바벨론이요 모든 음녀의 어미라 기록되었느니라. 이는 이마에 밴드 등을 두른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것은 단지 그녀의 진정한 본성, 그녀의 진정한 성격을 다시 한 번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즉 그는 지금 오는 유혹적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창녀요, 더욱이 그는 땅의 모든 창녀와 모든 가증한 것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녀가 모든 것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한 번 암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자손으로 삼는다는 사실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는 다른 사람들도 자기의 매춘 행위에 가담하고 우상 숭배 행위와 가증한 일에도 가담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로마는 다른 나라들을 유혹하고 꺾어 자신과 간음하도록 다른 나라들을 유혹하고 꺾는 매춘부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부에 대한 욕망과 과도한 사치를 바탕으로 구축된 그녀의 경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폭력을 행사하는 죄, 즉 성도들의 피를 흘리는 죄를 지은 자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벨론의 진정한 모습인 로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하려는 일은 이 환상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환상은 바벨론을 그 실제 모습으로 묘사했으며, 이제 그녀는 심판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요한은 독자들을 위해 이 환상을 더 자세히 해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7장부터 18장 5절까지, 바벨론에 대한 소개의 22번째 세션입니다.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요한계시록 17:-18.5, 바벨론 소개의 22번째 세션입니다.